

# 1.5 $\mu\text{m}$ InGaAs/InGaAsP/InP 양자점 Superluminescent Diode의 광 특성

유영채<sup>1,3</sup> · 이정일<sup>1</sup> · 김경찬<sup>1</sup> · 김은규<sup>2</sup> · 김길호<sup>3</sup> · 한일기<sup>1\*</sup>

<sup>1</sup>한국과학기술연구원 나노소자연구센터, 서울 136-130

<sup>2</sup>한양대학교 물리학과, 서울 133-791

<sup>3</sup>성균관대학교 전자전기공학과, 수원 440-746

(논문접수일 : 2006년 2월 20일)

MOCVD로 성장된 InGaAs 양자점을 이용하여 1.5  $\mu\text{m}$ 의 발광파장을 갖는 고휘도 발광소자 (Superluminescent diode, SLD)를 제작하였다. 상온에서 SLD의 광출력은 CW 3 mW 였고, 3-dB 파장대역폭은 55 nm 이었다.

주제어 : 고휘도 발광소자, InGaAs/InGaAsP/InP 양자점, 레이저 다이오드, 광 루미네센스

## I. 서 론

Superluminescent diodes (SLD)는 기존 Fabry-Perot (F-P) 레이저 다이오드 (laser diode, LD)의 고출력 특성과 발광다이오드 (light emitting diode, LED)의 넓은 파장대역폭 특성을 동시에 갖는 반도체 광원으로써 의료영상장비인 optical coherent tomography와 광 통신 시스템의 발광소자로서 응용 가능하다. SLD가 넓은 파장대역폭 특성을 갖기 위해서는 F-P 공진 모드를 억제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보통의 LD에서 한쪽 또는 양쪽 거울면에  $10^4$  이하의 무반사 코팅을 하여주거나 전류를 주입하는 전극형태를 변형하여 줌으로써 가능하다 [1]. 파장대역폭을 더욱 증가시켜 주기 위하여 동일한 두께의 다중양자우물 대신에 두께가 다른 다중양자우물 구조를 이용하기도 한다 [2]. 최근에는 낮은 온도 의존성, 큰 미분 이득 그리고 낮은 문턱전류밀도 특성을 갖는 양자점을 활성층으로 이용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. 이는 자발형성 양자점을 성장하는데 있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양자점의 다양한 크기 분포 (inhomogeneous broadening)가 파장대역폭을 더욱 증가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[3]. 현재까지 진행된 대부분의 양자점 SLD는 GaAs 기반 1.3  $\mu\text{m}$ 의 발광특성을 갖는 InGaAs 양자점을 사용하고 있다 [4, 5]. InP

를 기반으로 하는 In(Ga)As 양자점은 In 조성에 의해 격자 불일치를 가지므로 에피층 내에 부정합 전위가 발생하는데 이로 인해 전기적, 광학적 특성을 저하시키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. 최근 1.5  $\mu\text{m}$  발광파장을 갖는 InGaAs / InGaAsP / InP 양자점 LD가 펄스 구동에서 상온 발진 되고 있으나 [6], 아직 기존 양자우물기반 LD 특성을 능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. 그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1.5  $\mu\text{m}$  발광파장을 갖는 양자점 SLD는 거의 보고되지 않는 실정이다.

본 연구에서는 1.5  $\mu\text{m}$  발광파장을 갖는 InGaAs / InGaAsP / InP 양자점을 이용하여 SLD를 제작하였다. F-P 공진 모드를 억제하기 위하여, 즉 넓은 파장대역폭을 얻기 위하여 J 형태의 전극구조를 사용하였다. 제작된 SLD의 광출력은 상온연속동작으로 3 mW, 3-dB 파장대역폭은 55 nm로 측정되었다. 이와 같은 특성은 SLD가 WDM-PON (passive optical network)의 핵심 광원으로 이용될 수 있음을 설명하여 준다.

## II. 실험

그림 1은 (주)나노에피에서 유기금속 화학기상 증착법 (metal-organic chemical vapor deposition, MOCVD)으로 성장된 InGaAs / InGaAsP / InP 양

\* [전자우편] hikoel@kist.re.kr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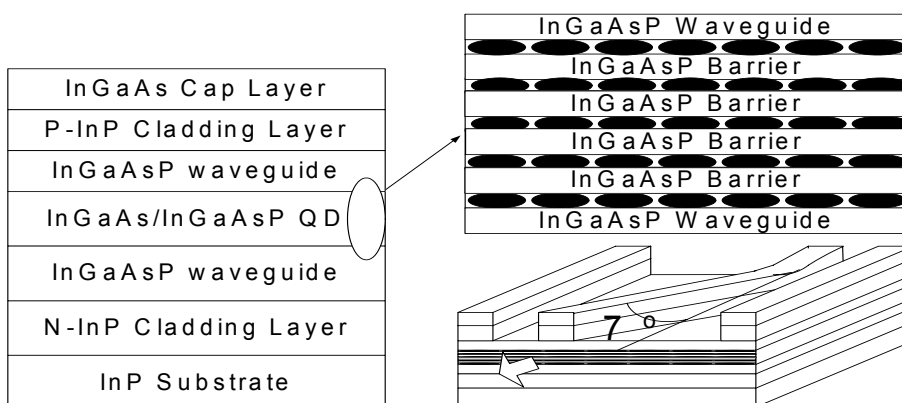


Fig. 1. Schematic structures of the epi-wafer including 1.55  $\mu\text{m}$  InGaAs QD and SLD

자점 시료의 구조를 보여준다. InP (001) 기판 위에 200 nm 두께의 InP 완화층과 1100 nm 두께의 n - InP cladding 층을 성장한 후 [7], InGaAsP ( $\lambda_g = 1.1 \mu\text{m}$ ) 가이드층과 InGaAs 양자점으로 구성된 활성층, 그리고 다시 InGaAsP ( $\lambda_g = 1.1 \mu\text{m}$ ) 가이드 층을 순차적으로 성장하였다. 이때 InGaAsP 가이드 층의 두께는 100 nm로 하였다. 활성층은 5층의 InGaAs 양자점으로 구성되었으며 각각의 양자점층은 30 nm 두께의 InGaAsP ( $\lambda_g = 1.1 \mu\text{m}$ ) 층으로 분리되었다. 상위 InGaAsP 가이드층 위로는 1300 nm 두께의 p - InP cladding 층과 200 nm 두께의 InGaAs 오믹층이 성장되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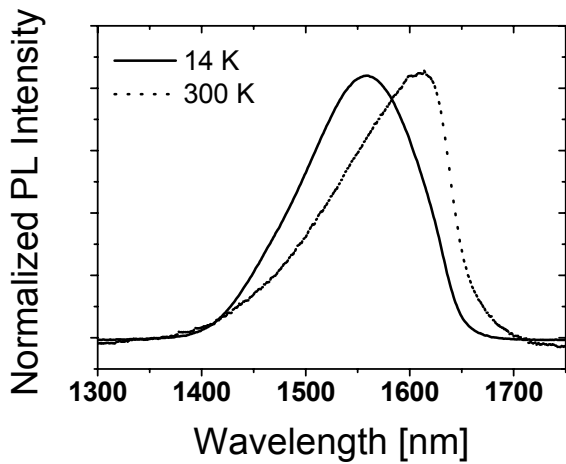
SLD는 자발 형성된 광이 활성층을 지나면서 광 이득을 얻어 광 출력이 증폭되고 광 귀환이 일어나지 않도록 F-P 공진 모드 형성을 억제함으로써 넓은 파장대역폭을 얻게 된다. 본 연구에서는 기존 LD의 공진 조건을 억제하기 위하여 일직선 영역 (straight)과 구부러짐 영역 (bent)을 함께 갖는 J 형태의 SLD를 제작하였고, 그 기하학적 구조는 그림 1에 나타내었다 [8]. F-P 공진 모드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구부러진 출력면의 반사율을 최소화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공진기 축으로부터 올바른 각  $\theta$ 의 선택이 중요하다. 각  $\theta$ 는 파장과 유효굴절률의 차이에 의해 결정된다. 본 연구에서는 올바른 각  $\theta$ 를 위하여 유한한 반사도를 가지는 경사진 거울에 대한 Fresnel 반사 손실을 고려하여 반사계수를 구하였다 [9]. 도파로의 폭이 5  $\mu\text{m}$  일때 구부러진 영역의 반사계수가  $10^{-4}$  이하가 되기 위해서는 도파로가 공진 축으로부터

약 7° 정도 기울어져야 하는 것으로 계산되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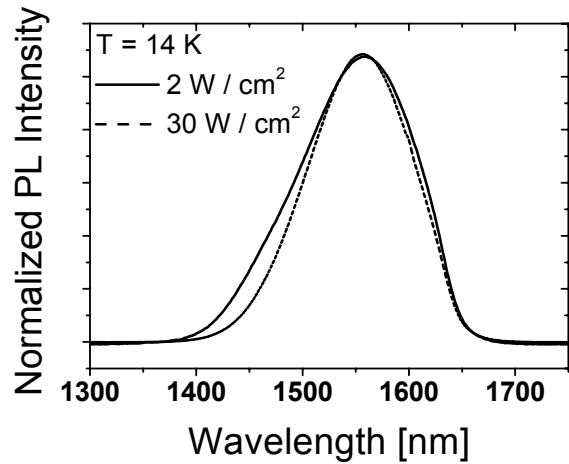
양자점을 포함하는 에피웨이퍼의 기본적인 물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SLD 제작과 함께 LD도 제작하였다. 앞서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SLD는 F-P 모드를 억제하기 위한 전극 구조만 다를 뿐, 기타 공정은 보통의 LD와 동일하며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제작되었다. 먼저 시료의 유기세척과 함께 습기 제거를 위해 오븐에서 약 30분 동안 건조 시킨 후 spin coater를 이용하여 AZ 5214E 감광제를 시료표면에 도포하였다. 노광작업과 현상작업을 한 후 선택적 습식식각을 하였으며 PECVD를 이용하여 SiO<sub>2</sub> 절연막을 3000 Å 증착하였다. J 형태의 금속증착을 위하여 다시 감광제 도포, 노광, 현상작업을 거쳐 절연막 식각을 하였다. 열린 전극구조에 저항성 접촉을 형성하기 위해 p-형 금속인 Ti / Pt / Au 를 전자빔 증착기를 이용하여 각각 300/300/3000 Å 증착 후 425 °C 에서 급속 열처리 하였다. 전류 주입시 SLD의 열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시료 두께를 120 ~ 130  $\mu\text{m}$  까지 박막화 하였다. 마지막으로 InP 기판에 n-형 금속인 AuGe / Ni / Au 를 열 증착기를 이용하여 각각 300/300/3000 Å 을 증착 후 385 °C 에서 급속 열처리 하였다. 제작된 SLD는 길이 1 ~ 2.5 mm로 절단하였으며 무반사 코팅은 하지 않았다.

### III. 결과 및 토의

그림 2 (a)는 14 K와 300 K에서 측정된 PL 특성 곡선을 보여준다. 중심피크의 파장 변화는 온도 증가



(a) Temperature dependence (14 K and 300 K)



(b) Excitation power dependence ( $2 \text{ W / cm}^2$  and  $30 \text{ W / cm}^2$ )

Fig. 2. Photoluminescence characteristics of InGaAs QD

에 따른 적색편이를 나타내며 PL 반치폭은 각각 62 meV와 69 meV로서 거의 동일함을 알 수 있다. 이와 같이 온도에 따라 PL 반치폭의 변화가 적은 것은 양자점에서의 에너지준위 불연속성에 기인한 것으로 양자점 고유 특성중의 하나이다. 한편 양자우물 PL 반치폭의 경우는 저온에서 보통 30 meV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과 비교할 때 62 meV는 상당히 넓은 편이다.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같이 양자점 크기의 비균일성 (inhomogeneous broadening)에 기인하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. 그림 2 (b)는 동일한 온도 (14 K)에서 여기광 세기를  $2 \text{ W / cm}^2$  와  $30 \text{ W / cm}^2$  에서 측정된 PL 특성곡선을 나타낸 것이다. 여기광 세기가 15 배 증가하여도 PL spectrum의 peak 위치와 모양은 거의 변화되지 않음을 관찰할 수 있다. 이는 전도대역과 가전자대역의 첫번째 에너지 준위를 차지하는 캐리어들이 충분한 여기 에너지임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에너지 준위로 여기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.

그림 3은 1  $\mu\text{s}$  펄스 폭과 0.1 % 주기를 갖는 펄스 구동에서 측정 온도에 따른 문턱전류 값을 보여준다. LD의 특성 온도 ( $T_0$ )와 문턱전류 ( $I_{th}$ )와의 관계식은  $I_{th} = I_0 \cdot \exp(T / T_0)$ 로 표시되며, 이 관계식으로부터 선형 fitting된 특성온도는 300 K 위, 아래에서 각각 57 K 와 41 K 이었다. 이는 CW 동작된 1.5  $\mu\text{m}$  의 발광 파장을 갖는 InAs / InGaAs / InP 양자점 LD의 실온에서의 특성온도 56 K와 매우 유사

한 값이다 [10]. LD에서 일반적으로 동작온도가 증가하면 전자가 열적 요란에 의해 고 에너지 상태가 되고 활성영역에서 클래드층으로 넘쳐 흐르는 누설전류가 많아지며 비발광 재결합인 Auger 효과가 현저해진다. 그러므로 광 손실 (optical loss)는 커지고 소자의 온도 특성은 더욱 좋지 않게 된다. 그 결과 문턱전류는 더욱 높아지게 된다. 300 K 이상에서 특성온도가 급격하게 작아지는 이유 역시 주입전류에 따른 소자의 온도 특성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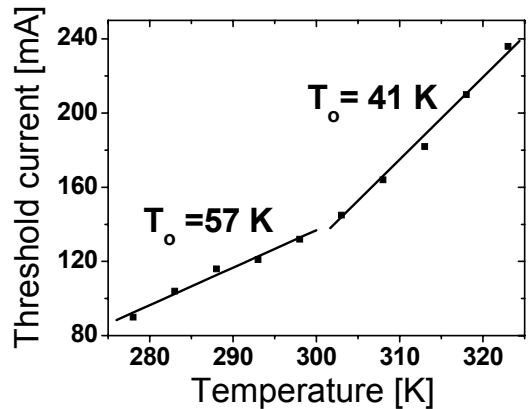


Fig. 3. Characteristic temperatures of 1.55  $\mu\text{m}$  InGaAs QD LD with the width of 5  $\mu\text{m}$  and cavity length of 1 mm (pulse width : 1  $\mu\text{s}$ , duty cycle : 0.1 %)

그림 4는 길이가 2.5 mm (일직선 영역 1mm와 구부러짐 영역 1.5 mm)인 SLD의 CW 광출력 특성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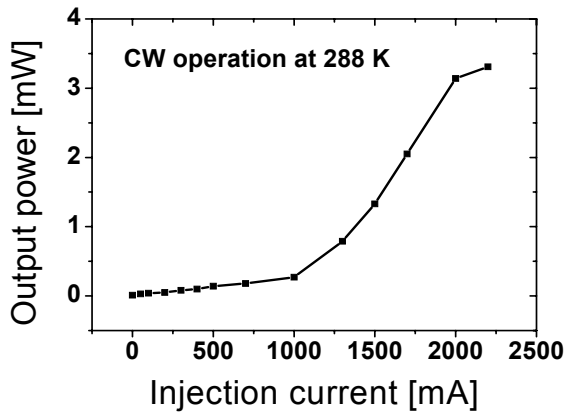


Fig. 4. Output power versus injection current characteristics : J-shaped SLD with 1 mm straight and 1.5 mm bent part is measured under CW operation at 288 K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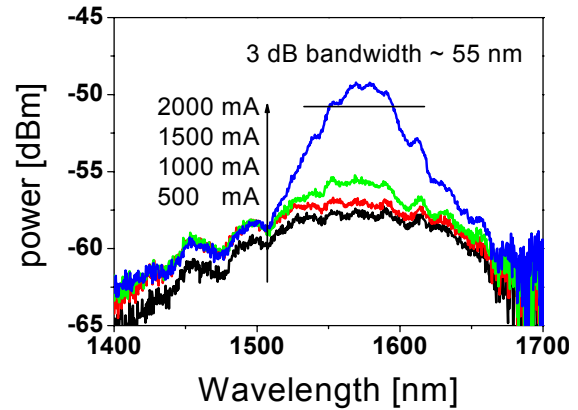


Fig. 5. Electroluminescence characteristics of 1.55  $\mu\text{m}$  InGaAs QD SLD at different injection currents

나타낸 것이다. 288 K 에서 측정된 turn-on 전류밀도 값은  $2.5 \text{ kA/cm}^2$  이며 최대 광 출력은 2.2 A 에서 3.2 mW 에 도달하였다. 이러한 높은 전류 밀도와 낮은 광 출력은, 앞서서도 언급되었듯이 광 손실을 증가시키는 활성층 온도의 상승과 연속 주입전류에 의한 주입캐리어 밀도의 상승 효과로 설명될 수 있다. 특히  $1.5 \mu\text{m} \sim 1.6 \mu\text{m}$  발광파장을 갖는 InGaAs / InGaAsP / InP 계열의 주된 광 손실 메커니즘은 가전자 대역의 가장 낮은 준위인 split-off 대역에서 heavy-hole 대역까지의 캐리어들의 흡수로부터 기인하게 되고 이러한 메커니즘은 온도에 강하게 의존한다 [11]. 그러므로 흡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주입캐리어 밀도는 더욱 커지게 되며, 활성층 온도는 더욱 증가하게 된다. 또한 F-P 공진 모드를 억제하기 위한 SLD의 기하학적 구조상 한쪽 반사면의 반사율이 매우 작기 때문에 연속발진을 위한 turn-on 이득계수는 더욱 커져야 된다. 이렇듯 흡수 손실과 반사면의 낮은 반사율을 보상하기 위해 주입캐리어 밀도는 더욱 증가하게 되며 활성층의 온도가 함께 상승함으로써 높은 전류밀도와 낮은 광 출력을 얻게 된다.

그림 5는 다양한 주입전류에 대한 EL 특성곡선을 보여준다. Turn-on 전류 1 A 아래에서는 자발방출에 의한 넓은 EL 특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turn-on 전류 이상에서는, 그림 2 (a) 300 K PL 피이크의 중심 파장이 1613 nm 임을 고려하면, 여기 발광에 의한 EL 특성임을 알 수 있다. 3-dB 파장대역폭은 2 A에서 약 55 nm 이었다. 양자우물을 활성층으로 하는 SLD의

경우 파장대역폭은 보통 22 nm 수준이고 양자우물을 다르게 한 chirped 양자우물인 경우 60 nm의 파장대역폭 특성이 보고 되었다 [12]. 본 연구에서처럼 단순히 양자점만으로 파장대역폭 55 nm를 얻은 것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양자점 크기의 불균일에 의한 영향인 것으로 판단된다. 양자우물에서와 같이 양자점의 크기가 다른 chirped 양자점을 사용할 경우 더 넓은 파장대역폭 특성을 갖는 SLD 제작이 가능할 것이다.

#### IV. 결 론

InP(001) 기판 위에 성장된 InGaAs 양자점 구조를 사용하여 PL 광 특성과 SLD 소자 특성을 측정하였다. PL의 반치폭은 14 K 와 300 K에서 각각 62 meV 와 69 meV로 측정되었으며 측정온도에 대한 이처럼 낮은 반치폭 변화는 양자점의 고유 성질을 잘 나타낸 것이다. J 형태의 전극구조를 가진 SLD를 제작하였으며 상온에서 광 출력은 CW 3 mW 였고 이때 파장대역폭은 55 nm 이었다. 이와 같이 넓은 파장대역폭은 양자점의 크기 불균일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.

#### 감사의 글

본 연구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기관고유사업(과제번호 2V00780)의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다.

## 참고 문헌

- [1] J. H. Song, S. H. Cho, I. K. Han, Y. Hu, P. J. S. Heim, F. G. Johnson, D. R. Stone, and M. Dagenais, *IEEE Photon. Technol. Lett.*, **12**, 783 (2000).
- [2] T. Yamatoya, S. Sekiguchi, F. Koyama, and K. Iga, *Japan J. Appl. Phys.*, **40**, 678 (2001).
- [3] Z. Z. Sun, D. Ding, Q. Gong, W. Zhou, B. Xu, and Z. G. Wang, *Opt. Quantum Electron.*, **31**, 1235 (1999).
- [4] Z. Y. Zhang, Z. G. Wang, B. Xu, P. Jin, Z. Z. Sun, and F. Q. Liu, *IEEE Photon. Technol. Lett.*, **16**, 27 (2004).
- [5] L. H. Li, M. Rossetti, and A. Fiore, *J. Cryst. Growth*, **278**, 680 (2005).
- [6] J. W. Jang, S. H. Pyun, S. H. Lee, I. C. Lee, Weon G. Jeong, R. Stevenson, P. Daniel Dapkus, N. J. Kim, M. S. Hwang, and D. Lee, *Appl. Phys. Lett.*, **85**, 3675 (2004).
- [7] S. H. Pyun, S. H. Lee, I. C. Lee, H. D. Kim, Weon G. Jeong, J. W. Jang, N. J. Kim, M. S. Hwang, D. Lee, J. H. Lee, and D. K. Oh, *J. Appl. Phys.*, **96**, 5766 (2004).
- [8] C. F. Lin, and C. S. Juang, *IEEE Photon. Technol. Lett.*, **8**, 206 (1996).
- [9] D. Marcuse, *J. Lightwave. Technol.*, **7**, 336 (1989).
- [10] F. Lelarge, B. Rousseau, B. Dagens, F. Poingt, F. Pommereau, and A. Accard, *IEEE Photon. Technol. Lett.*, **17**, 1369 (1996).
- [11] A. R. Adams, M. Asda, Y. Suematsu, and S. Arai, *Japan J. Appl. Phys.*, **19**, 621 (1980).
- [12] T. Yamatoya, S. Mori, F. Koyama, and K. Iga, *Japan J. Appl. Phys.*, **38**, 5121 (1999).

## Optical characteristic of 1.5 $\mu\text{m}$ InGaAs/InGaAsP/InP QD Superluminescent Diode

Young-Chae Yoo<sup>1,3</sup>, Jung-Il Lee<sup>1</sup>, Kyoung-Chan Kim<sup>1</sup>,  
Eun-Kyu Kim<sup>2</sup>, Gil-Ho Kim<sup>3</sup>, Il-Ki Han<sup>1\*</sup>

<sup>1</sup>*Nano Device Research Center,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, Seoul 136-130*

<sup>2</sup>*Department of Physics, Hanyang University, Seoul 133-791*

<sup>3</sup>*Department of Electronic and Electrical Engineering, SungKyunKwan University, Suwon 440-746*

(Received February 20, 2006)

Superluminescent diodes (SLD) with the emitting wavelength of 1.55  $\mu\text{m}$  was fabricated on InGaAs quantum dot structure grown by MOCVD. The output power and 3-dB bandwidth at room temperature and continuous wave operation were 3 mw and 55 nm, respectively.

Keywords : InGaAs/InGaAsP/InP QD, Photoluminescence, Electroluminescence, Superluminescent Diode

\* [E-mail] hikoel@kist.re.kr